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8. 8. 14. 제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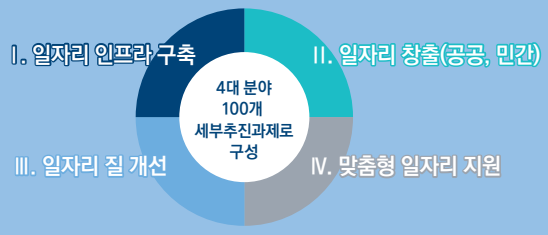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정부는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재정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로드맵은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여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재정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환경, 해외사례, 사업성과, 중점투자방향 등을 분석하여 예·결산 심사를 지원

로드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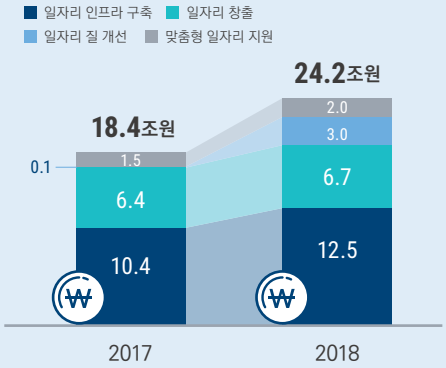


주요국 동향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추진 중인데, 공통점으로서는 청년 취업을 위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이 병행된 능동적 정책을 추진 중

예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은 2017년 18.4조원에서 2018년 24.2조원으로 증가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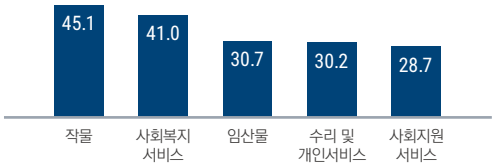
I. 일자리 인프라 구축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부문

고용영향평가 등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선호되는 고용·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은 노동생산성이 낮아 저임금 업종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취업유발계수 상위 품목산업

(2014년, 명/10억원)



직업분류별 임금·근로조건(2016년)

구분	월임금총액(천원/월)	연령(세)	근속년수(년)
전체평균	3,351	41.5	6.4
서비스종사자	1,764	46.0	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489	4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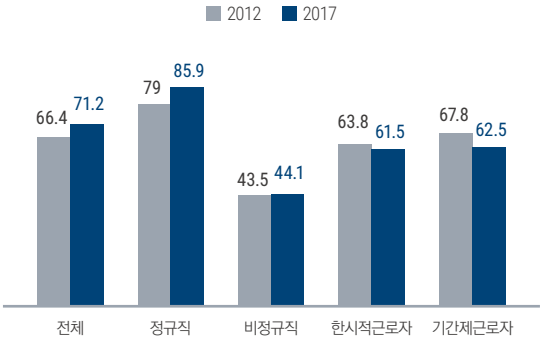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발전 측면도 고려하여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검토 필요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등 근로형태별로 고용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발생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모든 임금근로자 기준,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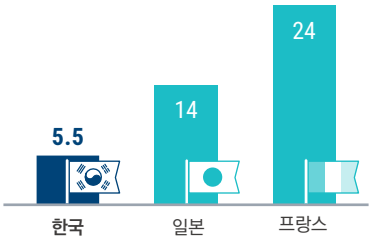
II. 일자리 창출

1. 산업경쟁력 제고 부문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수출 등 글로벌 혁신역량은 취약한 수준

중견기업 고용인원 비중

(201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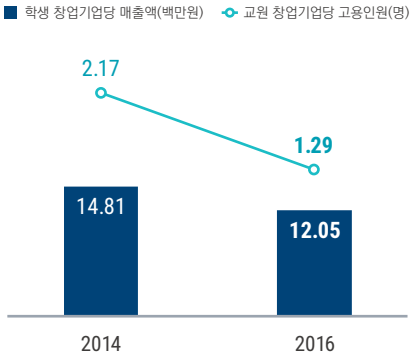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56%는 수출실적이 없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시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가 증가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2. 혁신형 창업 촉진 부문

대학 내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학생의 창업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기업 당 매출액 및 고용인원은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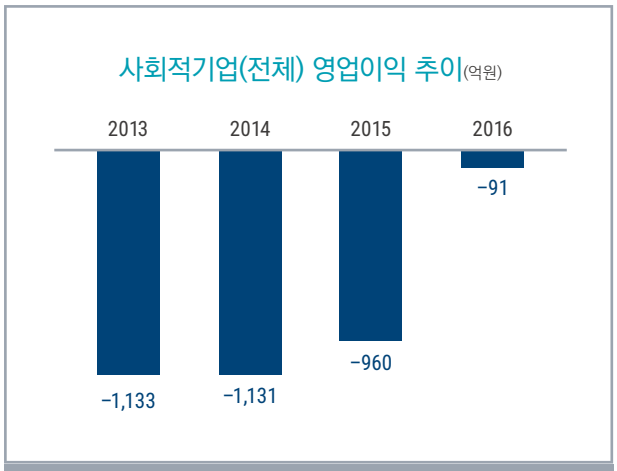
대학창업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추이



증가하고 있는 대학 창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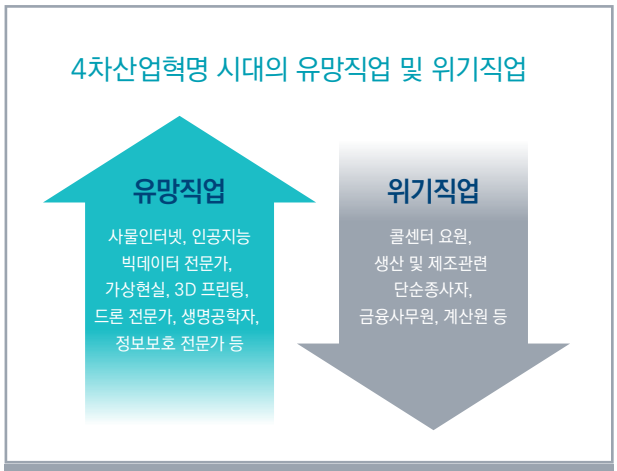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전체)의 영업이익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6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 및 유지의 어려움(43%)



사회적기업의 재무상황 및 판로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판로지원 방안 모색 필요

4. 신산업 육성 부문

4차산업혁명 등 미래형 신산업 등장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멸되는 일자리도 발생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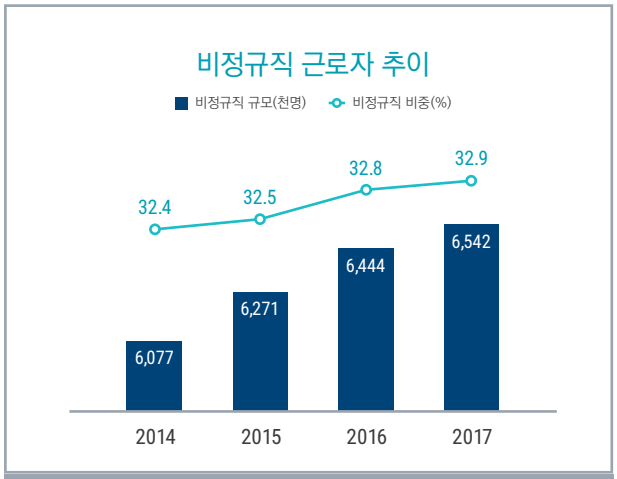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일자리 영향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Ⅲ. 일자리 질 개선

1. 정규직 채용여건 조성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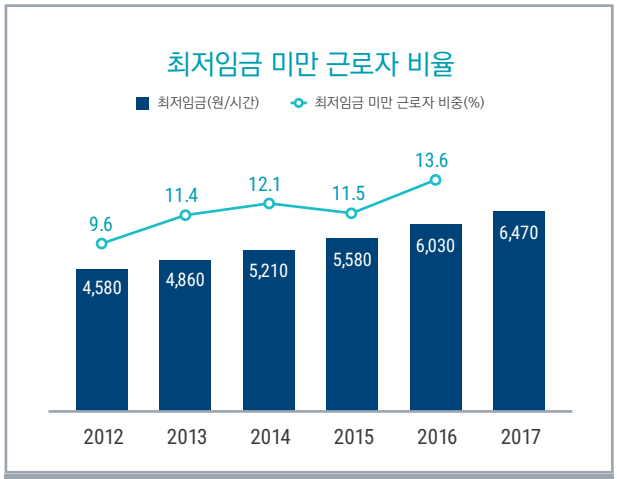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규모·비중은 3번째로 높고 2014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 노력 필요

2. 근로여건 개선 부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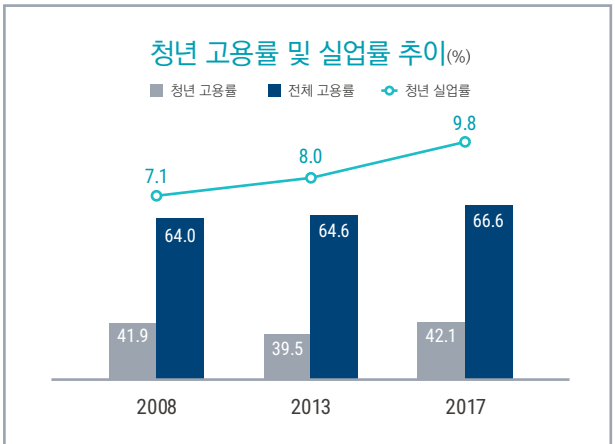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 필요

Ⅳ.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청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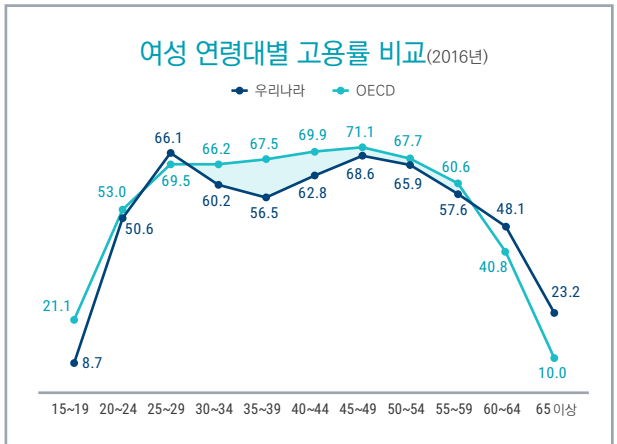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고 최근 10년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증가 추세



청년 구직 – 중소기업 구인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성과 강화 노력 필요

2. 여성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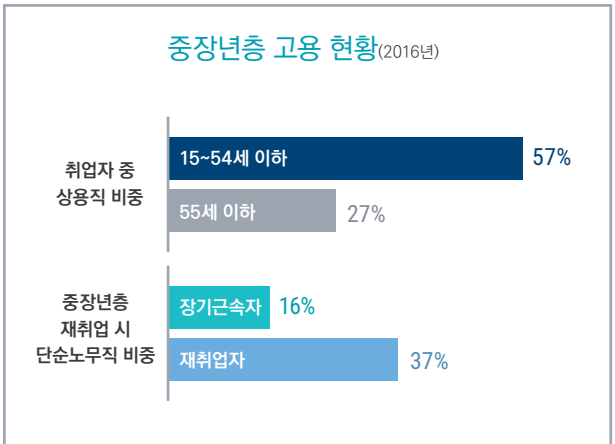
OECD 국가와는 달리 M-커브 형태의 30대 전후 여성 경력단절현상이 계속 발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30대 전후 여성 고용 지원 강화,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지속 추진 필요

3. 중장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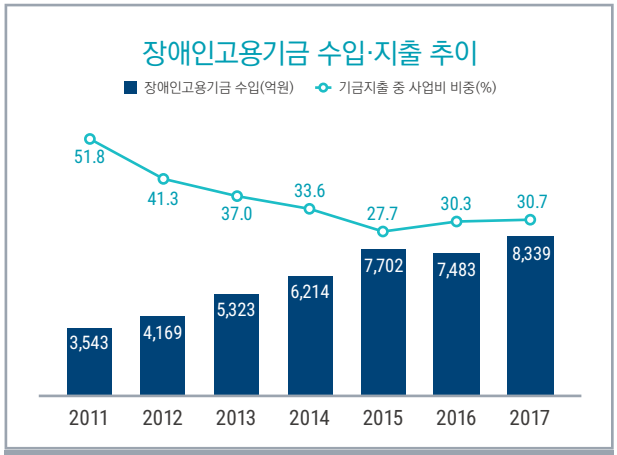
중장년 취업자는 상용직의 비중이 낮고, 재취업할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은 등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장년고용지원사업 등의 면밀한 추진 필요

4. 장애인 부문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기금의 사업비 지출 비중이 감소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확대 등 재원배분 개선 필요